

첫 번째 개방형 상하수국장 남궁은씨 특별 인터뷰

# 국내 상하수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발전적 정책 필요

상하수국 사상 첫 개방형 중앙부처 상하수국장에 선정된 남궁은씨는 서울대 토목과 출신이다. 그는 초창기 환경 산업에 진출한 바 있는 롯데기계에서 상하수도의 설계와 디자인, 건설과 시운전까지 한 적 있다. 남궁은씨가 직접 설계한 상하수도 시설은 포스코개발과 엘지화학의 시설 등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분야가 일본의 기술을 답습하고 추종하고 있는 현실에 회의를 느낀 남궁은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일리노이대학에서 '생물막을 이용한 유기물 제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지금의 한양대 배우근 교수와 수업을 함께 받기도 했다.

남궁은씨는 박사학위를 받은 뒤 15년간 다국적 기업인 피엔시 미국회사의 부분부장으로 일하며 일본에 거주했다. 최근 국내 현실에는 어두웠지만 국내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이번 개방형 상하수국장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서를 작성하며 함께 제출한 20면 정도의 직무수행 계획서는 그가 상하수도국장에 선정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계획서를 받아본 김명자 장관은 많은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대안들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심사위원이었던 최승일교수도 "남궁은씨는 매우 합리적이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물"이라 평했다.

상하수국장에 내정된 뒤 남궁은씨는 인터뷰를 통해 상하수국장으로 가장 먼저 실천할 일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2년은 짧은 세월"이라고 말문을 연 뒤 "반짝이는 사업이나 가시적인 일만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선임 국장들이 추진한 기본계획은 여러 해 동안 국내 현실에서 돌출된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수립한 것으로 분명히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것"이라 전제한 뒤 "이것들을 모아 지속적인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상하수도 시설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기존시설들은 운전상황과 유지관리가 빈약하다"며 "따라서 시설확충보다 효율화가 더 중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민영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아울러 재래식에 머물고 있는 전산화 및 정보화 사업에 있어 데이터를 구축하고 누구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하나로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리에서는 "설탕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며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가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도 발전을 위해 정부, 학계, 언론계 등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은씨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으므로 국내 현실에는 어두운 면이 있을 법하다.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이론만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인정한 뒤 "한국에 들어가면 상하수도에 관련된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를 받고 국외에 머물면서도 남궁은씨는 끊임없이 국내의 여러 인사들과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배우근 한양대 교수, 남궁완 건국대 교수, 신항식 박사, 박희경 교수, 정태학 교수, 한무영 교수 등의 학자들과 박대문 국장, 지재성 박사(건설기술연구원), 김갑수 박사(시정개발연구원), 안규홍 박사(KIST)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지인들이다. 또한 환경부내 윤서성 전임 차관, 고 양병철 실장, 안영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서동원 청장 등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정계의 남궁석 의원(전 정보통신부장관)과는 친척관계이다. 남궁은씨는 현재 간호학을 전공한 부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水道**



남궁은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